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견주관절
 논문제목 회전근개관절병증에서 골성 증가 옵셋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과 전통적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의 비교 (예비 보고)
Comparison of Bony Increased-Offset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and Conventional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(preliminary study)
 영문제목
 발표자 손원수 책임저자 김영규
 저자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,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*
 기관명 김영규•조승현•문성훈*•손원수

서론 : 회전근개관절병증의 치료를 위한 전통적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은 견갑와 절흔, 견관절 불안정성, 회전운동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골성 증가 옵셋 역형 전 치환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회전근개관절병증의 치료로 전통적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과 골성 증가 옵셋 역형 전 치환술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회전근개관절병증의 치료를 위한 전통적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은 견갑와 절흔, 견관절 불안정성, 회전운동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골성 증가 옵셋 역형 전 치환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회전근개관절병증의 치료로 전통적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과 골성 증가 옵셋 역형 전 치환술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.

결과 : 수술 전 회전근개근 위축은 1 군에서 37.3%, 2 군에서 41.1%였으며, 지방 변성지수(Global Fatty Degeneration Index)는 1 군에서 2.4, 2 군에서 2.3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 견관절 운동 범위는 1 군에서 수술 전 전방 거상 67.1° , 외회전 31.2° , 내회전 요추 3번에서 수술 후 전방 거상 131.9° , 외회전 35.7° , 내회전 요추 4번으로 전방 거상은 64.1° , 외회전은 4.5° 증가하였으며, 2 군에서는 수술 전 전방 거상 62.3° , 외회전 24.2° , 내회전 요추 2번에서 수술 후 전방 거상 133° , 외회전 39.6° , 내회전 요추 3번으로 전방 거상은 70.4° , 외회전은 14.2° 증가를 보였다. 운동 범위 중 외회전의 증가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$p<0.05$). SPADI 점수는 1 군에서 77.4점에서 30.9점, 2 군에서는 80.5점에서 30.8점으로 호전되었다. ASES 점수는 1 군에서 30.3점에서 71.1점, 2 군에서는 29.9점에서 72.9점으로 호전되었으며, Constant 점수는 1 군에서 31.3점에서 58.2점, 2 군에서는 35.7점에서 59점으로 향상되었다. 두 군간 임상적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 합병증으로 1 군에서는 13예(61.9%)의 견갑와 절흔이 보였으며, 이 중 3예는 하방 나사 이상 진행된 견갑와 절흔을 보였다. 2 군에서는 2예(15.4%)의 견갑와 절흔이 관찰되었으나 하방 나사 이상 진행된 견갑와 절흔은 없었다. 두 군에서 견갑와 절흔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$p<0.05$). 두 군에서 모두 견관절 불안정이나 삼입물 이완 등의 합병증은 없었으나, 1 군에서 만성 심부 감염 1예가 있었다.

결론 : 회전근개관절병증에 대한 역형 견관절 전 치환술은 단기 추시 상 두 군에서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, 골성 증가 옵셋 역형 전 치환술의 경우 외회전 운동범위의 증가가 전통적 역형 전 치환술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, 견갑와 절흔의 빈도는 유의하게 낮았다.

acknowledgment :

회전근개관절병증, 역형 견관절 치환술
